

**행**진곡은 민중가요에서 주된 노래양식의 하나다. 많은 사람들이 민중가요 하면 곧바로 행진곡 풍의 노래를 떠올릴 만큼 익숙하다. 흔히 투쟁가라고 부르는 이 행진곡 풍의 노래가 민중가요를 대표하는 노래양식이 된 것은 80년대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비롯한 단조 행진곡이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불려진 탓이다. 그리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파업가>나 <단결투쟁가> 같은 행진곡풍의 노래가 노동자들에게 인기를 모으면서 민중가요의

성마른 목소리가 되기 십상인 노래들에 숨을 불어 넣는다. 구호가 아니라 모든 이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된다. 성마른 목소리가 아니라 절절한 부르짖음이 된다. 이런 가수를 만나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박준이 그런 가수다.

### 삶과 하나가 된 노래

박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99년 지하철 파업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작곡가 김호철과 함께 총파업을 위한 싱글 음반

을 만들며 노동가수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 음반을 만들기 전에 그는 오랫동안 명동성당 앞에서 심장병 어린이가 돕기 거리 공연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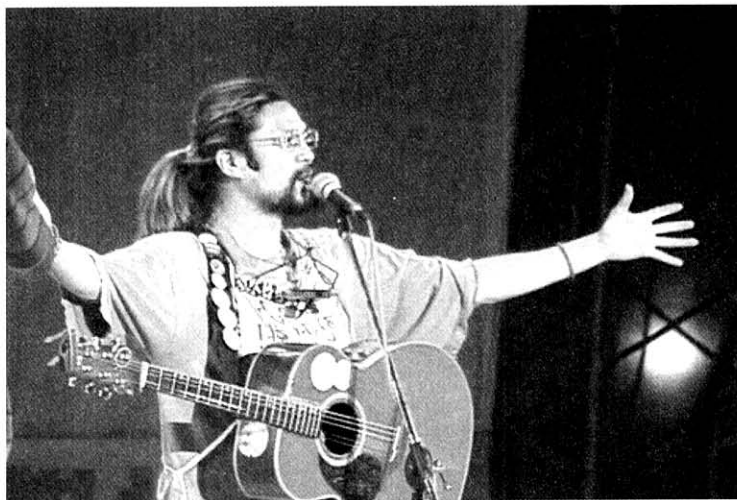
1980년 명동성당 청년회에서 활동하던 그는 노래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았고 1985년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심장병

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해 노래를 해왔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에서 모금함을 놓고 기타 한 대를 메고 노래하는 풍경은 이제 꽤 익숙하지만 그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드문 풍경이었다. 이렇게 거리에서 몇 시간씩 노래를 부르며 다져진 그의 가창력은 작곡가 김호철의 노래를 만나면서 빛을 발한다.

민주노총 음반으로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첫 번째 음반이라 볼 수 있는 '세상을 멈춰라'에서 그는 독창 가수로서는 감당할

# 박준



주된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노래들은 여럿이 함께 불러야 제 맛이 난다. 혼자 부르면 재미가 없다. 함께 부를 때의 절실한 느낌이 잘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간해서는 혼자 부르기가 어렵다.

하지만 때론 한 사람의 목소리로 들을 때 더 감동을 받기도 한다. 그 목소리에 힘과 너넉함이 있을 때 그렇다. 무엇보다 노래하는 사람의 깊이가 녹아들어 있을 때 그렇다. 자칫 잘못하면 단순한 구호처럼 들릴 수 있는 노래, 그저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던 김호철의 행진곡 풍의 노래들을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잘 소화해내며 독특한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나갔다. 성당에서 노래하던 경험과 거리공연을 하며 다져진 거칠지만 부드러우며 무엇보다 넉넉한 그의 목소리가 행진곡 풍의 노래가 빠지기 쉬운 구호의 함정을 넘어서게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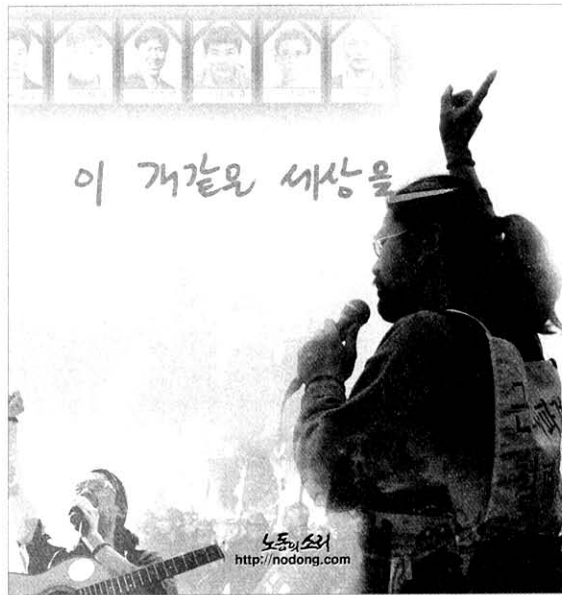
그러나 이 음반에서 백미는 역시 <옆을 쳐다봐>

가 아닌가 싶다. 노랫말의 내용과 그의 삶이 맞아 떨어지며 그야말로 삶과 노래가 하나 될 때 주는 감동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

이후 그는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싸움이 있는 곳이면 달려가서 공연을 하는 노동가수로 활발히 활동하는 한편, 1985년부터 공연하다 잠시 중단했던 명동성당 앞 거리공연을 다시 시작한다. 이번에는 해고된 노동자의 자녀들, 산업재해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마련하기 위해 공연을 연 것이다.

200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월요일 명동성당 앞에서 벌어지는 이 공연은 중단됨 없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의 이런 뜻에 공감하는 많은 가수들이 스스로 이 무대에 함께 했고 지금까지 무대에 서지 않은 민중가요 가수가 없을 정도로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내고 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잡아끌기도 하고 명동성당 앞에서 농성하는 사람들, 최근의 이주 노동자들까지 공연 속에서 하나로 녹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공연활동을 하며 첫 음반의 작곡자였던 김호



철과 함께 올해 초 2집 음반 '이 개 같은 세상'을 발표했다. 모두 15곡이 실린 이 음반에서도 첫 음반에서 보여준 모습과 변함 없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다져나가고 있다. 음악만으로 본다면 1집 음반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않은 아쉬움도 조금은 있지만 음악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활동과 작품을 일치시켜 나가는 일일 것이다. 여느 가수라면 어색했을 대목들도 자연스

럽게 들리는 것, 이제 너무 많이 들어 진부하다 싶은 내용도 새롭게 절실해지는 것, 이걸 단순히 가창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 활동과 작품을 일치시켜

자신의 생각과 삶이 일치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노래가 되는 것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이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기에 이런 모습을 꾸준히 지켜가는 사람이 소중하다. 항상 어느새 싸움의 현장에서 서 있으며 그 속에서 노래로 사람들을 묶어가고 그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는 어느새 노동가요계의 만형으로 후배들의 넉넉한 그늘이 되고 있다.



### 안 석 희

유인혁이라는 이름으로 <바위처럼><우산><노래만큼 좋은 세상><이 길의 전부>등의 노래를 만들었다. 희망의 노래 꽃다지 음악감독을 지냈고 2000년부터는 유정고밴드에서 활동했다. 음악작업을 하는 틈틈이 노래에 대한 글을 연재해 왔다.